

# 9월모평,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

### 영어 1등급 15.97%로 늘어

### 선택과목별 유불리는 여전

### 언어·미적분 응시비율 높아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은 다소 쉽게, 영어는 절대평가 전환 이래 가장 쉽게 출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높은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 응시자 비율이 상승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실시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국어·수학 다소 쉬워져…영어는 ‘역대급으로’ 쉬웠다=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을 보면 국어 영역은 140점, 수학은 145점이었다.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2022학년도 수능)보다 각각 9점과 2점 낮아졌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울수록 평점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점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지난해 수능은 매우 어렵고, 그중에서도 국어 영역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에 비해 이번 모평에서는 국어·수학 모두 난도가 다소 내려간 셈이다.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343점으로 국어 응시자(38만4천716명) 가운데 0.09%를 차지했다.

작년 수능에서 국어 만점자가 28명(0.01%),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59명(0.0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1천607명으로 전체 수학 영역 응시자(38만520명)의 0.42%였다.

작년 수능(2천702명, 0.63%)과 비교하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소폭 내려가 시험 자체는 수능보다 어렵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만점자는 감소한 모습이다.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는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학생 비율이 15.97%로 작년 수능(6.25%)보다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인 국어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6.01%로 작년 수능(37.57%)과 비교해 급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는 2018학년도 절대평가제 도입 이래 가장 쉽게 출제돼 1등급 비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이에 비해 한국사는 2017학년도 절대평가제 도입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고 전했다.

◇언어와 매체·미적분 선택 학생 비율 늘어…최고점 유불리 영향=특정 선택과목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높은 표준점수를 받기 유리한 현상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종로학원과 대성학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35점, 언어와 매체 최고점이 140인 것으로 추정했다.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 미적분 최고점은 145점으로 추정된다.

임성호 대표는 “작년 수능과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 모두 언어와 매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았다”며 “수학도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확률과 통계, 미적분 사이) 3점 차이가 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선택과목별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다른 현상 때문에 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 수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을 택한 학생이 64.4%, 언어와 매체를 택한 학생이 35.6%였다.

작년 수능에서는 화법과 작문이 70.0%, 언어와 매체가 30.0%였는데 언어와 매체에 응시한 학생 비율이 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수학 영역 응시자 비율을 보면 확률과 통계 49.3%, 미적분 44.8%, 기하 5.9%였다.

특히 미적분 선택 학생 비율은 작년 수능 39.7%, 올해 6월 모의평가 42.8%로 계속 상승했다.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은 중상위권 학생들 가운데 높은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기 위해 이들 과목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대부분의 과목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가운데 선택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의 경우 세계지리, 세계사가 72점으로 가장 높고, 정치와 법이 65점으로 가장 낮아 7점 차이가 났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Ⅱ가 76점으로 가장 높고, 지구과학Ⅰ과 생명과학Ⅱ가 69점으로 가장 낮아 역시 7점 차이가 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베트남어 I 응시자가 128명으로 가장 적었고, 중국어 I 응시자가 2천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확률과 통계 선택자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지만 미적분, 기하 선택자에게는 다소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수학은 현재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수능은 이번 9월 모평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은 비슷하고, 영어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강대, 2023학년도 신입생 951명 선발

### 전체 학과 수능 미반영

### 수시 합격 면 전액 장학금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는 2023학년도 공학, 간호보건, 인문사회, 예체능 등 4개 계열, 21개 학과에서 신입생 951명을 선발한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1차 모집에는 771명, 11월7~21일 수시 2차 모집에서는 139명을 뽑는다.

동강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입학전형을 완화해 입학문을 더욱 넓히고 장학금 혜택은 풍성하게 준비했다.

먼저 수험생들의 입학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21개 전체학과 모두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동강대는 지난해까지 4년제 학사과정인 간호학과와 3년제 응급구조과에서 수능 성적을 따져 학생을 뽑았다.

하지만 내년도 신입생은 고2 전 과목 내신 성적

(이수단위, 등급이 있는 과목)만 반영한다. 또 비교과성적 고교출석의 경우 수시모집은 1~2학년, 정시모집은 1~3학년 성적이다.

동강대는 장학금 혜택도 한층 강화했다.

올 수시모집을 통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기준으로 전액 장학금을 준다.

간호학과를 포함한 전체학과로 정원 내·외 모든 신입생이 대상이다.

특히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되고 전체학과 신입생들에게 고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후학 양성’의 설립자 유지를 받들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장원문화재단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장원문화재단 장학금’은 입학성적 최우수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졸업 시까지 현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파격적인 생활안정장학금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공석 2개월만에...황성환 전남 부교육감 부임

2개월째 공석이었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에 황성환(50·시진)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임명됐다. 전남도교육청은 황성환 신임 부교육감이 4일 부임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 부교육감은 부산 출신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8년 4월 공직에 입문했다.

2015년 6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교육부 비서실장, 학교안전총괄과장, 부산대 사무국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5월 9일부터 9월까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4일 김전홍 전 부교육감이 떠난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중앙정부와의 소통 차질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또 교육부의 주요 정책이 일선 학교까지 반영되지 않았으며 새정부 출범이후 진행된 전국 부교육감 논의 등에 국장급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등과 직접 소통하는 부교육감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교육행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부교육감이 임명돼 도교육청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동신대-NHN 클라우드 ‘맞춤형 보안 인재양성’ 업무협약

###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동신대학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단(RIS사업단)은 지난 29일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NHN 클라우드와 ‘지역 맞춤형 보안 인재양성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협약에 따라 RIS사업단과 NHN 클라우드 등 각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지역 IT 일자리 창출, 기술자문, 공동 연구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동신대 연석주 RIS사업단장은 “광주와 전남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혁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국가폭력의 진실과 화해의 길 찾기’ 강좌

###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국가폭력 사건의 실태를 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은 오는 11월2일(오후 4~6시)까지 조선대 본관 4층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세미나실에서 4차례에 걸쳐 제23회 재난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국가폭력의 진실과 화해의 길 찾기’이며 지난 2005년 독립적인 정부조사기관으로 출범해 제2기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다룬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 및 피해당사자들의 트라우마 실태와 함께 궁극적인 화해와 치유의 길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열린 제1강은 제2기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상과 함께 그동안 위원회에서 규명해 온 국가폭력의 전체적

인 윤곽과 실상에 대해 강연했다.

제2강은 오는 12일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김재형 교수가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국가폭력’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최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전형적인 국가폭력사건으로 인권유린 사건으로 그 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제3강은 여순 사건의 역사적 당일인 19일,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 교수가 ‘여순사건과 국가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해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까지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강연은 매우 의미가 크다.

마지막 제4강은 11월 2일 이대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폭력과 트라우마’를 주제로 강연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은 당사자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데 그 실태 또한 진상 규명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